

광주가톨릭교육원 문화 아지트 대변신

반세기만에 모습 드러낸

100m 지하 통로

‘검은 사제들’ 등 영화 촬영

미디어 작품 전시장 각광

18일까지 ‘멀티미디어 권승찬’전

교육원 “다양한 문화공간 활용”

북카페 열고 ‘갤러리 현’ 개관



광주시 서구 쌍촌동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지하에서 ‘멀티미디어 권승찬전’이 열리고 있다.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처음으로 지역작가에게 지하공간을 제공하며 다양한 미디어작품을 선보인다.



회화작품이 설치된 지하 통로.



북카페 ‘바오로의 딸’

1962년 지어진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광주시 서구 쌍촌동)은 고풍스런 붉은 벽돌, 플라타너스 숲이 어우러지며 여유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곳이다. 건물 내부에는 약 100m 길이에 달하는 지하공간이 존재한다. 작은 전등빛에 의존한 채 폭 2m 통로를 걷고 있으면 마치 중세시대 성당 비밀통로를 걷는 듯한 착각이 든다.

지하공간은 영화 관계자들이 먼저 가치를 알아봤다. 1930년대 경성을 배경으로 한 영화 ‘라디오 데이즈’에 등장했고 지난해 영화 ‘검은 사제들’ 배경 장소로 사용되며 주연을 맡은 강동원 등이 한달간 머무르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영화 ‘사선에서’ 이곳에서 촬영하며 이범수, 연우진이 찾았다.

50년 역사가 넘는 지하 공간을 비롯해 갤러리, 북카페, 음악감상실 등을 갖춘 광주가톨릭 평생교육원이 ‘문화 아지트’로 각광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지하 공간이 자리한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지하공간은 최근 다양한 미디어 작품이 설치된 전시장으로 변신했다. 18일까지 진행되는 ‘멀티미디어 권승찬전’ 현장이다.

2일 권 작가를 따라 지하공간을 찾았다. 낡은 나무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두컴컴한 복도가 등장한다. 벽에 걸린 회화 작품을 감상하며 걷다 보면 약 100평(330㎡) 규모 넓은 공간에 당도한다.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 먼지 쌓인 시멘트 바닥, 나뭇굴고 있는 지름 1.5m 전선 코일, 각종 배관과 전선들까지. 공간과 어우러진 멋진 작품을 기대하는 마음이 한순간에 사그라든다.

‘아직 작품 설치가 덜 됐다’고 생각하는 찰나 권 작가가 전기를 공급하자 자재들 사이로 설치된 네온에 빛이 들어오며 신세계가 펼쳐졌다. 파랑, 빨강, 초록 등 형형색색 네온은 배관, 자재 사이를 지나가며 공간에 녹아들었다. 네온빛이 부딪히는 붉은 벽돌은 자연광일 때보다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 고조

시켰다. 공간 기획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아이디어 노트도 전시해 볼거리를 더한다.

권 작가는 “지하실 본연 모습을 살리기 위해 일부러 영화 촬영 소품이나 건축 자재를 치우지 않고 작품을 설치했다”며 “낮 보다는 밤에 작품 진면목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걸음을 통로로 옮겼다. 길게 뻗은 통로에도 곳곳에 네온을 설치하며 밝은 상황을 연출했다. 한편에는 건물 뒷면 숲에서 주어진 나뭇가지와 네온을 조합한 설치작품도 선보인다.

작가는 또 영상 작품도 준비했다. 따로 공간을 마련해 지난 한달간의 작업과정을 소개한다. 올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지만 지하인 까닭에 큰 불편을 못 겪었다는 뒷이야기를 전한다.

갤러리 현에서는 광주시립미술관 베이징 레지던시와 한국 생활을 소재로 그린 회화 ‘남자’시리즈를 전시한다. 혼자 술먹는 남자, 청소하는 남자, 연탄기는 남자 등 권작가 인생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우연히 지하공간을 본 권작가의 끈질긴 구애로 이뤄졌다. 권 작가는 가톨릭신자가 아니었지만 공간을 재창조하겠다는 열정을 내비치며 승낙을 받아냈다. 평생교육원 측도 지난해 11월 ‘가톨릭문화원’ 명칭을 부여하며 ‘갤러리 현’을 개관하는 등 본격적인 문화공간으로 새 출발하려던 상황이었다.

권 작가에게도 새로운 도약이었다. 지난 2014년 베이징에서 돌아온 후 집체기를 겪었던 그는 가톨릭문화원을 만나고 나서 작업 활력을 되찾았다.

권 작가는 “가톨릭문화원 지하는 작가 누구나 탐을 낼 만한 공간이다”며 “지난 한달간 하루 10시간씩 작품을 설치하면서도 힘든지 모르고 재미있게 작업했다”고 말했다.

가톨릭문화원 관계자는 “전시 뿐 아니라 각종 문화공간으로서 지하실을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의 062-380-2211. /글·사진=김용희기자 kimyh@

에콜드 플루트 앙상블 정기연주회

12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경쾌한 플루트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에콜드 플루트 앙상블 제10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12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플루티스트 이현경(전 광주시향 플루트 수석)씨가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에콜드 플루트 앙상블은 2008년 창단 후, 정기연주회와 함께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일본 고베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 플루트 콩그레스 AFF Kobe 2016 행사에 초청돼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이씨가 지휘와 협연을 맡은 이번 음악회에서는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제2번’ 1악장, 요한 슈트라우스의 ‘박쥐’ 서곡, 스메타나의 ‘몰다우’, 김환기 편곡의 ‘아리랑’, 립스키코르사코프의 ‘클레식 매들리’가 연주된다. 또 프랑스 작곡가 드비엔느의 ‘플루트 협주곡 제7번’을 이씨가 협연한다.

이씨는 전남대학교, 프랑스 파리 에콜노르말 음악원, 러시아 국립 라흐마니노프 콘서트바토리 지휘과, 그리고 성신여대



이현경

박사과정에서 졸업했으며 현재 아시아 플루트 연맹이사, 한국 플루트학회 이사, 광주 국제교류센터 음악분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윤지·민들레·전상진·오현·최선옥·류은

채·이현정·이수민·최효석씨 단원들과 함께 10번째 정기연주회를 기념해 이소영·성기영·황미리·김유진·김이레씨 등 부산 등 타 지역 연주자들이 호흡을 맞춘다.

또 이후성(광주시향 첼로 차석), 김유진(더블베이스·예향실내악단원), 강승용(Hmco 앙상블 멤버)씨가 객원연주자로 참여한다. 티켓 가격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10-6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여성재단 작은 전시...강서록 작품전

18일~12월 16일

체험프로그램도



▶‘토우’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이 오는 1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재단 내 북카페에서 강서록작가의 ‘여유로운 (토우 이야기)’ 작품전을 개최한다.

지역여성 작가의 솜씨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광주여성재단이 연중 상설 기획한 제11차 작은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이다.

강씨는 이번 전시에서 흙을 빚어 다양한 작품을 만드는 즐거움과 인테리에 소품으로 시각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강씨는 빚고

공예협동조합 단체전, 핸드메이드페어, 초대전 등에 참여했으며 현재 운암동에서 개인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18일 오후 2시 재단 내 북카페에서는 시민 대상 무료체험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지역민이면 누구나 무료참여 가능하고, 참여 희망자는 17일까지 홈페이지(www.gjwf.or.kr)와 팩스(670-0505)로 신청을 신청하면 된다. 문의062-670-053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황영성·박석규·송 용·박동인·박종수·신동원·박성현·전희진·정운태

원로작가 9인 특별전

기간: 2016. 10.11(화) - 11.11(금)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박물관갤러리

☎ (062) 222-0072 (예술의거리 서문입구)

2016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novita is COMFORT

2016.10.04 ~ 2016.11.30

*설치시 2만원 추가

품격1	품격2	품격3
참 편한 비데 Comfort	합리적인 가격으로 실속형 비데 특가	새 비데를 할인가! 비데 보상 판매
NEW BD-N443(설치비 별도) BD-N433(설치비 별도) 279,000 / 249,000 + 브레프 파워 액티브 5종	BD-N430T/A5(설치비 별도) BD-N423T(설치비 별도) 159,000원 159,000원	BD-N433R/S1(설치비 포함) 219,000원 *타사 제품 가능

노비타 비데로 욕실의 품격을 높여보세요

행사비데 구입시 1년치 필터(2개)증정!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본사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www.novita.co.kr

구입문의 | 비데프라자 (062) 515-1144